



필리핀 한국 상공회의소 뉴스 KOREAN CHAMBER OF COMMERCE PHILIPPINES NEWSLETTER



May 2025 Issue | Vol. 34

SPECIAL POINTS OF INTEREST

- 아세안, 미국의 관세에 '깊은 우려' 표명 — page 1-2
- 필리핀 노동부, 고용주에 권고: 채택근무가 교통 혼잡 완화에 도움될 수 있어 — page 2-3
- 세계은행, 필리핀 경제성장률 2031년까지 6% 미만 유지 전망 — page 3-4
- 미국 관세 압박 속: 마르코스 대통령 “필리핀, 중국 및 아세안-걸프와의 무역 협력 강화에 전념” — page 4-5
- 싱크탱크, 2025년 필리핀 관광객 822만 명 예상 — page 6-7
- BIR, 허위 영수증 이용한 탈세자 끝까지 추적한다 — page 7
- 가린, 에너지부 장관 취임... 원자력 추진 본격화될 듯 — page 8

아세안, 미국의 관세에 '깊은 우려' 표명

May 28, 2025 | Agence France-Presse | Philippine Daily Inquirer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 동남아시아 지도자들은 화요일, 미국의 관세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아세안(ASEAN)은 지정학적으로 불확실한 세계 속에서 ‘시대의 요구에 대한 대응’으로 평가받는 중국 및 걸프 국가들과의 정상회의를 개최했다.

무역을 의존하는 이들 경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 무역 규범을 흔든 이후 스스로를 보호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 세계 여러 국가를 겨냥한 일련의 관세 조치를 발표한 뒤, 대부분의 조치를 90일간 유예했다.

동남아시아 국가 연합(아세안)은 화요일 밤 성명을 통해 “아세안의 경제 성장, 안정, 통합에 복잡적이고 다차원적인 도전을 야기하는 일방적인 관세 조치의 시행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또 다른 성명에서 아세안은 이러한 관세 조치에 직면하여 “함께 단결하겠다는 강한 결의”를 강조하고, 다른 파트너들과의 협력을 확대하겠다고 다짐했다.



Asean leaders chain their hands while posing for a picture before the start of the plenary session at the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Asean) Summit in Kuala Lumpur, Malaysia, Monday, May 26, 2025. From left to right, Laos's Prime Minister Sonexay Siphandone, Myanmar Permanent Secretary of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ung Kyaw Moe, Singapore's Prime Minister Lawrence Wong, Thailand's Prime Minister Paetongtarn Shinawatra, Vietnam's Prime Minister Pham Minh Chinh, Malaysia's Prime Minister Anwar Ibrahim, the Philippines' President Ferdinand Marcos Jr., Brunei's Sultan Hassanal Bolkiah, Cambodian Prime Minister Hun Manet, Indonesia's President Prabowo Subianto and East Timor's Prime Minister Xanana Gusmao. (AP Photo/Vincent Thian)

중국과 걸프 국가들

말레이시아는 현재 아세안 순회의장국을 맡고 있다. 이날 말레이시아는 아세안, 중국, 걸프협력회의(GCC) 간 첫 정상회의를 주최했다. GCC는 바레인, 쿠웨이트, 오만,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로 구성된 지역 블록이다.

리창 중국 총리는 회의에서 “국제 정세가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 이번 정상회의는 지역 경제 협력의 선구적인 작업”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회의는 단순히 역사의 연장이 아니라 시대의 요구에 대한 응답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싱가포르국립대(NUS)의 중 자이안 교수는 아세안이 전통적으로 미국과 중국 같은 선진 경제국들 사이에서 ‘일종의 중재자 역할’을 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미국이 신뢰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아세안 회원국들은 다각화를 추구하고 있다”며, “걸프 국가들과 중화인민공화국 간 교류를 촉진하는 것도 이러한 다각화의 일환”이라고 분석했다.

‘시기적절하고 전략적인 움직임’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조치로 큰 타격을 입은 중국 역시 다른 시장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중국과 아세안은 이미 서로의 최대 교역 파트너다. 4월 기준으로 중국의 태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수출은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으며, 이는 미국으로 향하던 물량이 우회된 결과로 풀이된다. [Cont. page 2]

아세안, 미국의 관세에 '깊은 우려' 표명

[Cont. from page 1]

쿠잉후이 말라야대 교수는 AFP와의 인터뷰에서 “리창 총리의 참여는 시기적절하면서도 전략적인 행보”라고 평가했다.

“중국은 여기서 서방의 디커플링(탈동조화) 시도에 맞서, 신뢰할 수 있는 경제 파트너라는 이미지를 강화할 기회로 보고 있다”고 그는 덧붙였다.

화요일, 아세안은 중국과 달리 미국에 대한 보복 관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베이징과 워싱턴은 관세를 주고받으며 갈등을 고조시켰지만, 스위스에서의 회담을 통해 90일간 일부 관세를 유예하기로 합의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산 제품은 여전히 대부분의 국가들보다 높은 관세에 직면해 있다.

화요일 만찬에서 리 총리는 아세안과 걸프협력회의(GCC)에게 “지속적인 개방”을 촉구했다.

아세안 ‘중심성’

아세안은 역사적으로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어느 한쪽 편을 드는 것을 피해왔다.

싱가포르국립대(NUS)의 종 자이안 교수는 중국이 동남아시아에서 외국인직접투자(FDI) 측면에서 미국, 일본, 유럽연합에 이어 네 번째라고 지적했다.

말레이시아의 안와르 이브라힘 총리는 회담 말미 기자회견에서 아세안이 미국과 중국 양측과의 관여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세안의 기본 입장은 중심성(centrality)이다”라고 안와르 총리는 말하며, “미국과의 관여를 계속하고 비교적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매우 합리적”이라고 덧붙였다.

안와르 총리는 월요일, 올해 아세안-미국 정상회의 개최를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다고 밝혔다. 말레이시아 외교장관은 아직 미국 측의 응답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중국과의 밀착은 또 다른 문제를 안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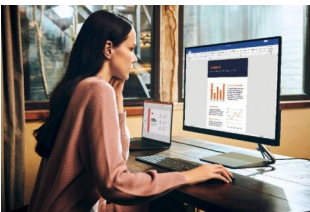
월요일, 필리핀의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대통령은 남중국해에서 법적 구속력이 있는 행동 강령의 채택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중국은 해당 해역에서 아세안 10개국 중 5개국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으며, 특히 필리핀과는 수개월간 충돌이 지속되고 있다.

[Source: https://business.inquirer.net/527597/asean-expresses-deep-concern-over-us-tariffs](https://business.inquirer.net/527597/asean-expresses-deep-concern-over-us-tariffs)

필리핀 노동부, 고용주에 권고: 재택근무가 교통 혼잡 완화에 도움될 수 있어

May 26, 2025 | Justine Xyrah Garcia | BusinessMirror



다음 달부터 87억 페소 규모의 에드사(EDSA) 정비 공사가 시작되면서 교통 혼잡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필리핀 노동고용부(DOLE)는 화요일 민간 부문 근로자들에게 재택근무(WFH) 의무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비엔베니도 E. 라게스마 노동부 장관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고용주들이 반드시 대체 근무제도를 시행할 필요는 없지만, 직원들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가능한 조정을 해줄 것을 권고했다.

“우리는 강제로 하지는 않지만, 강력히 권장하고 있습니다,” 라게스마 장관은 말했다.

“재택근무(WFH) 시스템을 개선하거나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근로자와 기업 모두에게 상호 이익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라고 덧붙였다.

라게스마 장관은 원격 근무가 공화국 법령 제11165호, 즉 ‘텔레커뮤팅법(Telecommuting Act)’에 따라 고용주와 근로자 간 합의에 따른 자발적 근무 방식임을 설명했다.

법에 따르면, 민간 기업은 최소한의 노동 기준(보상 시간, 초과 근무, 휴일, 휴가 권리 등)을 준수하는 조건 하에 재택근무 옵션을 제공할 수 있다.

[Cont. page 3]

필리핀 노동부, 고용주에 권고: 재택근무가 교통 혼잡 완화에 도움될 수 있어

[Cont. from page 2]

고용주는 이러한 근무 형태에 대한 서면 계약 조건도 반드시 발행해야 한다.

비록 공화국 법령 11165호가 정부가 재택근무(WFH)를 강제할 수 있도록 허용하지는 않지만, 라게스마 장관은 기업들이 출퇴근 시간이 길어질 것을 예상하여 유연 근무제와 지각에 대한 출석 규정을 완화하는 방안을 고려해 줄 것을 호소했다.

“제 경험으로는 고용주들은 항상 폭넓고 개방적인 시각을 보여주었다... 운영에 지장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모든 부담을 떠넘겨서는 안 된다” 고 장관은 말했다.

또한 말라카냥에서 대체 근무 방식을 지시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할 경우, 노동부는 이를 즉시 시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리는 지원하고 돕겠다... 노동부는 항상 삼자주의(tripartism)와 사회적 대화의 원칙 하에 운영된다. 근로자와 고용주가 합리적인 합의를 도출해 운영 차질을 막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라고 라게스마 장관은 말했다.

정부는 수십억 페소 규모의 에드사 재활성화 사업이 보행자 도로 개선과 홍수 관리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업은 2027년 완공 예정이다.

노동단체, 공식 대화 촉구

한편 노동단체들은 노동부가 단순 호소를 넘어 공식적인 협의를 주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센트로(Sentro) 사무총장 조수아 마타는, 에드사에 의존해 통근하는 근로자들이 많아 이번 사업이 근로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클 수 있다고 경고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노동부와 근로자 간의 솔직한 협의이며, 모든 대안이 논의되는 포괄적 대응으로 이어져야 한다,” 고 마타는 비즈니스미러와의 인터뷰에서 말했다.

그는 해결책이 재택근무나 유연근무에만 국한되지 않고, 교통 관리, 대중교통 개선, 근로자 지원 프로그램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유노동연맹(FFW) 회장 소니 마툴라는 이번 사업 규모에 걸맞은 노동자, 고용주, 정부가 참여하는 삼자 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통근하는 사람들이 바로 근로자다. 이동성에 차질이 생기면 고용, 수입, 생산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고 마툴라는 말했다.

“정부나 고용주의 프로그램이 아무리 좋아도 근로자가 의사 결정에 참여하지 않으면 이를 인정하지 않으며, 오해가 생길 수 있다,” 고 덧붙였다.

마툴라는 FFW가 다른 노동 및 고용주 단체와도 양자 회담을 시작해 앞으로 나아갈 방안을 추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협력적이고 포괄적인 접근이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해결책, 예를 들어 유연근무제, 교통 지원, 근무시간 조정 등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고 그는 말했다.

[Source: https://businessmirror.com.ph/2025/05/27/dole-to-employers-wfh-may-help-ease-traffic-woes/](https://businessmirror.com.ph/2025/05/27/dole-to-employers-wfh-may-help-ease-traffic-woes/)

세계은행, 필리핀 경제성장을 2031년까지 6% 미만 유지 전망

May 28, 2025 | Ben Arnold de Vera | Manila Bulletin

세계은행 그룹(WBG)은 필리핀의 연간 경제성장이 올해부터 2031년까지 6% 미만에 머물 것으로 전망했다.

필리핀을 위한 최신 국가협력프레임워크(CPF)인 20262031 회계연도 기간 동안, WBG는 필리핀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올해 5.3%, 내년 5.4%, 2027년 5.5%로 예측했다. 이는 마르코스 주니어 행정부가 임기 후반부에 목표로 삼은 68%의 보다 야심 찬 목표치보다 낮은 수치다.

[Cont. page 4]



세계은행, 필리핀 경제성장을 2031년까지 6% 미만 유지 전망

May 27, 2025 | Louella Desiderio | The Philippine Star

세계은행 그룹(WBG)은 2025년부터 2027년까지의 평균 GDP 성장률을 5.4%로 전망했다. WBG는 “리스크는 대체로 하방으로 기울어져 있으며, 주요 글로벌 플레이어들의 잠재적인 보복 조치가 세계 경제 성장에 추가적인 영향을 미쳐 국내 성장에도 타격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의 관세 부과로 인한 세계 무역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있음을 가리킨다.

또한 “증가하는 불확실성은 금융시장 불안정과 자본 유출을 촉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WBG는 “필리핀은 주요 수출 품목에 대한 우대 관세를 개선과 글로벌 성장 둔화와 연관된 낮은 원자재 가격의 혜택을 볼 수 있으며, 외부 압력이 없을 경우 향후 3년 동안 통화정책 금리 정상화 전망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올해 WBG가 예상한 5.3% GDP 성장률은 필리핀 경제가 가장 엄격한 코로나19 제한에서 점진적으로 재개된 이후 가장 느린 성장 속도다.

이는 “높아진 관세와 무역 정책 불확실성이 수출 수요에 미친 직접적인 영향, 글로벌 정책 불확실성 증가가 투자 수요에 미친 영향, 그리고 글로벌 성장 둔화를 통한 수출 및 투자 수요에 대한 간접적 영향” 때문이라고 WBG는 분석했다.

그러나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WBG는 “필리핀은 대부분 상품 가치 사슬보다는 서비스 분야에 통합되어 있어 무역 장벽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상품 부문보다 부정적 영향이 완화되고 있으며, 공공 투자와 비무역 부문 민간 투자가 견고하게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필리핀의 GDP 성장률은 2028년 5.7%, 2029년과 2030년에는 각각 5.8%, 2031년에는 5.9%로 점차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WBG는 2025년부터 2031년까지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3.0%에서 3.2% 사이로 예측하며, 이는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연간 2~4% 목표 범위 내에 있다고 평가했다.

마르코스 주니어 행정부가 팬데믹 시기에 대규모 차입으로 인해 커진 재정 적자를 줄이고 공공 부채 비율을 낮추기 위한 재정 건전화에 나서면서, WBG는 재정 적자가 2024년 GDP 대비 5.7%에서 2025년 5.4%, 2026년 4.9%, 2027년 4.4%, 2028년 4.1%, 2029년 3.9%, 2030년 3.7%, 2031년 3.6%로 점진적으로 축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국가 채무 비율도 작년 60.7%에서 올해 60.2%, 내년 59.7%, 2027년 59.6%, 2028년 59.1%, 2029년 58.9%, 2030년 58.6%, 2031년 58.1%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WBG는 “필리핀의 종합세계개혁 프로그램(CTRP)을 포함한 국내 수익 창출 강화 지원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이는 수익 창출 개선과 지출 효율성을 통한 재정 건전화 진전을 목표로 한다.

Source: <https://mb.com.ph/2025/05/28/philippine-economic-growth-to-stay-below-6-until-2031world-bank>

미국 관세 압박 속: 마르코스 대통령 “필리핀, 중국 및 아세안-걸프와의 무역 협력 강화에 전념

May 29, 2025 | Jocelyn Montemayor, Irma Isip | Malaya Business Insight



President Marcos speaks at a press conference in Kuala Lumpur, Malaysia on May 27, 2025. (RTVM)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은 필리핀이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걸프협력회의(GCC)뿐만 아니라 중국과의 무역 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필리핀으로 돌아가기 전 가진 언론 인터뷰에서, 마르코스 대통령은 자신과 중국의 리창 총리가 미국 관세가 초래하는 경제적 위험에 대해 각자의 우려를 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아세안-걸프협력회의-중국 회의의 비공식 만남 자리에서, 마르코스 대통령은 리 총리가 중국은 미국의 무역 전쟁과 관련되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마르코스 대통령은 중국이 이 지역 경제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중국 경제의 변동이 필리핀을 포함한 아세안 국가들의 대중 무역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습니다.

[Cont. page 5]

미국 관세 압박 속: 마르코스 대통령 “필리핀, 중국 및 아세안-걸프와의 무역 협력 강화에 전념

[Cont. from page 4]

“우리가 점점 더 복잡해지는 글로벌 환경을 헤쳐 나가는 가운데, 필리핀은 걸프 지역, 중국, 그리고 우리 아세안 회원국들과의 협력을 더욱 심화하는 데 확고히 전념하고 있습니다.”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만약 이 그룹들을 합친다면... 우선 GCC와 아세안을 시작으로... 그것은 매우 중요한 경제권입니다.” 라고 마르코스 대통령이 덧붙였습니다.

경제적으로 타당한 선택

필리핀 개발연구소(Philippine Institute of Development Studies)의 선임 연구원 존 파올로 리베라는 이러한 경제권이 “경제적으로 타당할 수 있다” 고 말했습니다.

리베라는 아세안, GCC, 중국이 세계 인구, 자본, 무역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의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는 가운데 아세안과 필리핀의 시장 다변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1967년에 설립된 10개국 아세안 블록은 회원국 간 경제 및 안보 협력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회원국은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입니다.

GCC(걸프협력회의)는 바레인, 쿠웨이트, 오만,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로 구성된 지역기구로, 아랍 국가 간 기존 유대와 협력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미국에 이어 중국은 명목 국내총생산(GDP) 기준 세계 2위의 경제대국입니다.

마르코스 대통령은 아세안 회원국들이 “지역 협력과 상호 의존성 강화를 통해 지역 내 경제 안정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합의를 이루었다” 고 밝혔습니다.

현재 아시아 경제는 강하고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지만, 일방적인 관세 부과는 경제 활동과 경제 전반의 “축소”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마르코스 대통령은 말했습니다.

특히 한 국가에 대한 높은 관세의 영향은 투자와 무역 관계 때문에 지역 내 다른 국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상호 무역 및 관세” 정책에 따라 모든 수입품에 대해 관세를 인상했으며, 이로 인해 캄보디아 49%, 베트남 46%, 필리핀 17%의 관세가 부과되었습니다. 이 조치는 90일간 유예되어 7월에 종료될 예정입니다.

한편, 중국은 125%의 관세 인상을 받았습니다.

경제적 실용주의

리베라는 오늘날의 경제 현실이 “미묘하다” 고 모든 관련자가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아세안이 정치적 동맹보다는 경제적 실용주의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점에서 미묘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국이 이 지역 무역과 생산 네트워크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깊은 경제 협력은 경제적으로 합리적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반드시 지정학적 충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필리핀은 전략적 자율성을 유지하면서 경제적 기회를 활용하는 데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라고 리베라는 덧붙였습니다.

마르코스 대통령은 아세안의 미래는 서로를 신뢰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아세안 회원국들이 미국과의 무역 전쟁 속에서 서로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가 되어 더욱 긴밀한 상호 의존성을 유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https://malaya.com.ph/business/business-news/under-us-tariff-pressures-marcos-ph-committed-to-deeper-trade-engagement-with-china-asean-gul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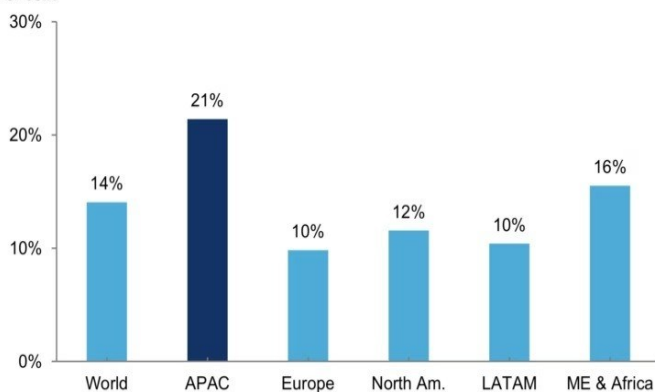
싱크탱크, 2025년 필리핀 관광객 822만 명 예상

May 29, 2025 | Ma. Stella F. Arnaldo | BusinessMirror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외국인 방문객 수가 올해 드디어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며, 일본, 한국, 인도네시아, 인도가 회복을 주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런던에 본사를 둔 싱크탱크 옥스퍼드 이코노믹스 산하 관광 경제 연구소(Tourism Economics)는 2025년 아시아태평양(아태) 여행 전망에서 “아태 지역의 입국 관광은 지속적인 강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국제 여행 규모는 2025년에 2019년 수준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팬데믹 이후 큰 반등을 의미하며, 2025년 아태 지역은 전 세계 지역 중 입국 방문객 숙박일수가 가장 큰 전년 대비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해는 대부분 국가가 팬데믹 이전의 입국 방문객 수 회복을 경험할 것이며, 특히 일본[+31%], 한국[+20%], 인도네시아[+16%], 인도[+17%]가 두드러진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Inbound Visitor Nights: Growth for 2025 Projections vs 2024
Per cent



Source: Tourism Economics

한편, Tourism Economics는 중국의 해외 여행 시장이 계속해서 회복세를 보이면서 아시아·태평양(APAC) 지역 주요 관광지들의 관광객 유치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팬데믹 이전, **중국은 아태 지역 숙박 관광객의 약 25%**를 차지했으며, 2019년 이 지역의 전체 입국 관광객 수는 약 7억 5,200만 명에 달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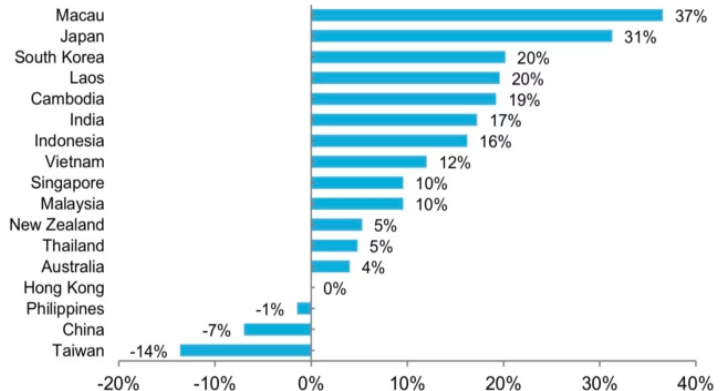
“중국의 해외여행에 필요한 항공 수용 능력과 관광 관련 서비스(여권 갱신 및 기타 물류 등)에 대한 제약은 대부분 해소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2024년 말 다소 개선세에도 불구하고, 중국 경제의 전반적인 전망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으며, 중국 가계의 소비 심리도 위축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인들은 중국인들의 해외여행 수요를 일부 약화시키고 있으며, 그 대신 더 저렴하고 편리한 국내여행으로 수요가 옮겨가고 있습니다.”

관세, 여행 심리에 악영향 우려

Tourism Economics는 아시아태평양(APAC) 지역의 강한 회복세를 전망하면서도, 몇 가지 하방 리스크를 지적했습니다. 이 기관은 “관광 수요의 주요 동인이 되는 글로벌 거시경제 지표들에 대한 최근 몇 달간의 기대치가 악화되고 있다”며 “노동 시장의 둔화와 임금 상승률의 지속적인 하락이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글로벌 무역 전쟁의 시작과 여러 국가에서의 지속적인 정치적 긴장 속에서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다”고 덧붙이며, 이러한 요소들이 향후 여행 수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Cont. page 7]

Top Destinations in APAC for Inbound Overnight Visits in 2025*
Volume vs 2019 levels, countries in order of 2025 projected visit volumes



*Excludes travel between China, HK & Macau

Source: Tourism Economics

반면, 올해 입국자 수가 2019년 대비 신기록을 세우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는 ** “대만[-14%], 중국[-7%], 그리고 필리핀[-1%]” **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광경제연구소는 필리핀의 입국자 수가 약 822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이는 2019년 830만 명보다 1% 낮은 수준입니다. 이는 중국 관광객의 대규모 복귀 없이도 2025년 필리핀 입국자 수가 600만 명 수준에 머물 것이라는 대부분 관광 전문가들의 분석보다 낙관적인 전망입니다.

중국, 아태 지역 회복에 기여

관광부(DOT)의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월부터 4월까지 필리핀을 방문한 국제 관광객 수는 2024년 같은 기간 대비 두 번째로 감소했습니다.

(관련 기사: “관광객 유입 여전히 부진, 2025년 1~4월 210만 명,” 비즈니스미러, 2025년 5월 26일자)

싱크탱크, 2025년 필리핀 관광객 822만 명 예상

[Cont. from page 6]

미국의 중국 및 기타 주요 시장에 대한 수입품 관세 부과 결정은 경제적 불확실성을 야기하고, 이에 따라 전 세계 여행객들의 심리를 위축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관광경제 전문 기관인 Tourism Economics는 “이러한 가정 하에서, 아시아태평양(APAC) 지역의 인바운드 관광은 2025년과 2026년 모두 기준 시나리오보다 8% 낮은 수준이 될 것이며, 2025년의 도착객 수는 2019년 대비 단 1% 증가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 시나리오에서는 중국의 경기 둔화로 인해 중국발 해외여행의 회복도 더더저, APAC 지역 목적지의 전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장기적으로는 인도와 중국의 중산층 확대에 힘입어, 이 지역 전체에서 인바운드 여행 수요가 2019년 수준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두 국가의 국민들이 더 많은 가치분 소득을 갖게 되면서, 특히 APAC 내 단거리 및 중거리 목적지에 대한 국제여행 수요는 크게 증가할 것이다. 이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여러 선진국에서 관찰된 추세와 일치한다” 고 보고서는 설명했습니다.

또한 항공 연결성 개선, 비자 요건 완화 기대, 그리고 체험 중심 및 ‘진정성 있는’ 여행에 대한 관광객 수요 증가 등이 이 지역의 장기적 성장에 추가적인 동력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Source: <https://businessmirror.com.ph/2025/05/29/think-tank-predicts-8-22m-tourists-in-phl-in-2025/>

BIR, 허위 영수증 이용한 탈세자 끝까지 추적한다

May 29, 2025 | Ma. Stella F. Arnaldo | BusinessMirror

마닐라 - 국세청(BIR) 로메오 루마기 주니어 청장은 수요일, 탈세를 목적으로 유통 영수증을 사용하는 기업들은 결국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루마기 청장은 화장품 업체 에버빌레나(Ever Bilena)가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짜 또는 이른바 "유통" 영수증을 사용한 혐의로 형사 고발된 데 따른 입장을 밝혔다.

루마기 청장은 자신의 공식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법무부(DOJ)가 이번 사건에 대해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판단하고 지난 4월 법원에 기소했다고 밝혔다.

에버빌레나 코스메틱스(Ever Bilena Cosmetics Inc.)와 그 대표 디오셀도 사이(Dioceldo Sy), 재무담당자

마이애미 시이타오코(Miami Siytaoco)는 탈세 및 세금 신고서에 정확하고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혐의로 케손시 지방법원 제33지법에 형사 사건 4건으로 기소되었다.

이번 사건은 국세청(BIR)이 강화하고 있는 ‘가공거래 추적 프로그램(Run After Fake Transaction, RAFT)’의 일환으로, 가짜/허위 영수증을 겨냥한 조치이다.

에버빌레나에 대한 형사 고발은 BIR의 ‘두려움 없는 강경 집행 활동(Fearless and Aggressive Enforcement Activities)’ 프로그램의 일부이기도 하며, 이 프로그램은 탈세와 조세 사기를 중점 단속하고 있다.

BIR RAFT 태스크포스 조사에 따르면, 에버빌레나는 유통회사인 데카리치 슈퍼트레이드(Decarich Supertrade Inc.)가 발행한 유통 영수증을 사용하고, 그로 인해 부당한 세금 혜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BIR은 앞서 2024년 2월 1일, 에버빌레나를 상대로 총 16억 페소(PHP1.6 billion)에 달하는 세금 탈루 혐의로 법무부(DOJ)에 형사 고발을 제기한 바 있다.

루마기 청장은 “이것은 명백한 탈세입니다. 우리 기업인들께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이런 행위는 이제 그만두십시오. 유통 영수증을 사용하지 말고, 정당한 세금을 납부하여 우리나라에 기여하십시오” 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BIR은 DOJ와 협력하여, 유통 영수증을 사용하는 자들에 대해 주저 없이 형사상 탈세 혐의로 고발 조치를 취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게시물에서 루마기 청장은 조세 회피에 맞서 싸우는 BIR의 캠페인을 적극 지지한 법무부와 헤수스 크리스핀 레물라(Jesus Crispin Remulla) 장관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1997년 제정된 국가내국세법(National Internal Revenue Code, NIRC) 제255조에 따르면, 탈세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최소 50만 페소, 최대 1,000만 페소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유죄자는 최소 6년, 최대 10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위반자가 법인일 경우 해당 법인의 책임자에게 형사 처벌이 부과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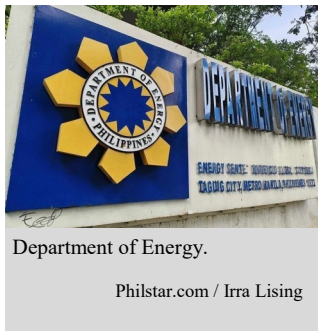
Source: <https://www.pna.gov.ph/articles/1251028>



Bureau of Internal Revenue
Commissioner
Romeo Lumagui Jr. (Photo courtesy of BIR)

가린, 에너지부 장관 취임… 원자력 추진 본격화될 듯

May 29, 2025 | Brix Lelis | The Philippine Star



Department of Energy.

Philstar.com / Irra Lising

마닐라, 필리핀 — 필리핀 가정에 원자력을 통한 전력 공급이라는 야심찬 목표가 에너지부(DOE)의 주요 주장 교체로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세련 가린 에너지부 차관이 DOE 수장직을 맡을 예정이며, 현 라파엘 로틸라 에너지부 장관은 환경자원부(DENR) 장관으로 자리를 옮긴다.

가린 차관의 DOE 장관 대행 승진은 원자력 에너지 지지자들 사이에서 기대감을 불러일으켰으며, 이에 필리핀 최대 전력 회사인 마닐라전력(Meralco)도 포함된다.

Meralco의 수석 부사장이자 최고운영책임자(COO)인 로니 아페로초는 최근 인터뷰에서 원자력 목표를 추진하는 데 있어 새 DOE 수장의 리더십에 대해 낙관적인 입장을 밝혔다.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원자력 의제를 정말 잘 챙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하지는 않았지만, 원자력이 그녀의 최우선 과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아페로초는 말했다.

지난해 가린 차관은 정부의 원자력 로드맵 공개를 주도했으며, 이 로드맵은 필리핀이 원자력 도입을 실현하는 경로를 제시한다.

로드맵에 따르면 필리핀은 2032년까지 최소 1,200메가와트(MW)의 원자력 발전소를 상업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35년까지 2,400MW, 2050년까지는 4,800MW로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

가린 차관은 또한 원자력의 안전하고 안정적인 사용을 감독할 독립 원자력 규제 기관 설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일부 국회의원들은 ‘PhilATOM 법안’ 또는 ‘필리핀 원자력 안전법’의 통과를 추진하고 있다.

PhilATOM은 필리핀 원자력 연구원이 현재 수행하는 모든 규제 업무를 인수할 예정인 필리핀 원자력 규제 기관 설립을 내용으로 한다.

하지만 아페로초는 19대 국회에서는 시간 부족으로 이 법안이 통과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휴회 중인 국회는 6월 2일 재개되어 6월 13일에 폐회할 예정이다.

“다음 국회에서는 이 법안이 상원의 최우선 과제가 되어 통과되길 기대합니다,” 라고 아페로초는 덧붙였다.

하원은 2023년 말에 이 법안을 3차 최종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지만, 상원에서는 작년 12월과 올해 초에야 논의가 본격화되었다.

Source: <https://www.philstar.com/business/2025/05/29/2446518/nuclear-push-gain-steam-garin-takes-over-doe>

Contact Us

**Korean Chamber of Commerce
Philippines, Inc. (KCCP)**
Unit 1104 Antel Corporate Center, 121
Valero St., Salcedo Village, Makati City
(02) 8885 7342 | (02) 8404 3099
info@kccp.ph | www.kccp.ph

This KCCP E-Newsletter is supported by:

200 MW Cebu CFBC Power Plant



ENERGIZING LIVES,
POWERING COMMUNITIES



63.3MW Calatagan Solar Farm